

“농번기 일손 부족 줄인다”...전남도, 일자리 1만1000건 매칭

농촌엔 일손 부족 해소·도시민엔 일자리 제공...농촌 일자리 사업 인기 도, 예산 15억원 투입...농가·구직자에 상해보험가입·숙박비 등 지원

전남도가 농가와 구직자를 연계시켜 농촌에 일손을 줄이고, 구직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여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선정한 보성군·해남군·진도군과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중인 전남도가 일자리 연계 1만1000건의 성과를 냈다.

단순히 일자리 연계만이 아니라 농가의 인건비 절감, 구직자들의 중개수수료 삭감, 구직 인력의 귀

촌 및 정착 등으로 이어지면서 쇠락하는 농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남도와 고용노동부,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지역 농가 및 농산물 제조·가공기업의 일자리에 도시 유휴인력을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촌 일자리 1만6500건 연계를 목표로 하

고, 지난 5월말 현재까지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없는 보성군은 일자리 연계 목표 3500건을 조기 달성해 올 하반기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해남군과 진도군은 목표 1만3000건 대비 57.7%인 7500건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부터 전남도는 고용노동부, 보성군, 해남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추진, 일자리 연계 목표 7000건 대비 190.6%인 1만3341건을 달성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시기별·작물별 안정적 인력 매칭을 통해 농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연계로 농가와 구직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농가와 구직자를 온라인 플랫폼이나 현장 접수 등을 통해 모집해 연계시켜준 뒤 구직자의 중식·간식 비용과 구직자 상해보험가입을 농가에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 비용, 안전장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전남도의 지원은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에게는 일당을 높여주는 효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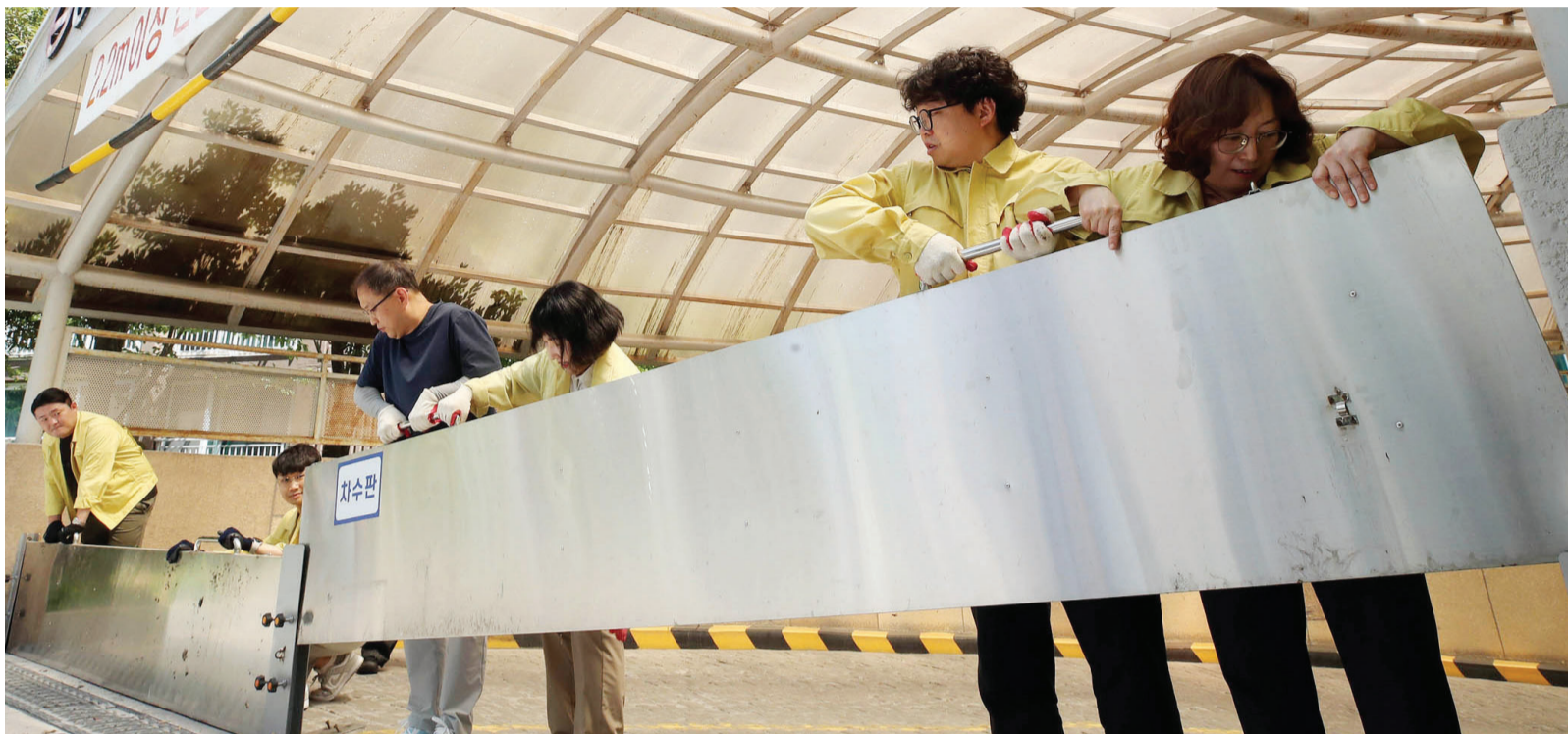
전남도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고 15만원 선까지 치솟던 인건비가 10만~13만원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 효과가 크자 전남도는 올해 국비 10억원 포함 15억원의 예산을 더 늘리고 사업 대상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한 농촌봉사활동, 구직·귀농 정보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인력난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농가와 구직자 모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일자리를 얻고 있다"며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귀촌, 귀농 등으로 이어져 농촌에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마 대비 차수판 점검 19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집중호우 대비 물막이 시설인 차수판을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경제자유청, 미래차 투자유치 나선다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 참가 광주 미래차 연구·실증환경 설립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서울에서 미래자동차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GSC KOREA 2024, 이하 GSC 2024)'에 참가한다.

이 행사에서 '미래차 중심도시 광주'를 알리고 기업 투자유치에 나선 계획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공동 홍보관을 운영한다.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 미래 모빌리티 분

야 등 광주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기반 시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또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투자 여건, 특전(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할 광주를 집중적으로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는 미래차 전환 흐름에 맞춰 미래형 자동차 연구·실증 기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며 "광주에 자동차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출산을 상승위해 광주형 키즈카페 조성해야”

박희율 시의원 정례회 자유발언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광주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 현금성 지원보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희율(민중·남구3) 광주시의원은 19일 제3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광주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광주형 키즈카페' 조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3만 명대를 기록했다.

광주시의 경우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출생아 수도 2022년 7446명에서 2023년 6176명으



로 전년 대비 17.1%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 폭을 보였다.

박 의원은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지방 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구축 예산액을 100만원 늘렸을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육아 부담 경감, 안전한 놀이 환경 제공, 지역 공동체 강화 등 효과가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으로 광주시 젊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김혜나 기자 khn@

조선대병원에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생긴다

총 780억원 투입해 지상 7층 98병동 규모 건립...2026년 완공 목표 환자 진단부터 팬데믹 위기 댄 중환자 중점치료 등 의료지휘본부 역할

지역 필수 의료시설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19일 조선대 병원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감염병전문병원이 광주에 지정되고 착공에 들어간 것은 국내 최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고광안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지역미 질병관리청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김이수 조선대학교법원 이사장, 김진호 조선대학교병원장, 국회의원, 광주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총 사업비 78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3202㎡, 지하 2층-지상 7층, 98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이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문병동 구축 지원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돼 추진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17년 8월 국내 최초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조선대학교병원이 지정됐다.

그동안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물가 상승,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 광주시, 조선대학교병원이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날 착공하게 됐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 시에는 ▲감염병 환자 진단과 치료, 검사 ▲신종·변종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및 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조사 ▲권역내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역할을 축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때는 ▲신속한 신종 감염병 진단 ▲중환자 중점 치료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와 병상 배정 ▲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이송체계 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지휘본부 역할을 하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